

# 스위스 연방보건국의 <LOVE LIFE STOP AIDS>캠페인

이번호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스위스 연방보건국이 펼쳤던 <LOVE LIFE STOP AIDS>캠페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HIV/AIDS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 안전하고 올바른 섹스 룰, 콘돔 사용방법 등을 자세하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캠페인에서는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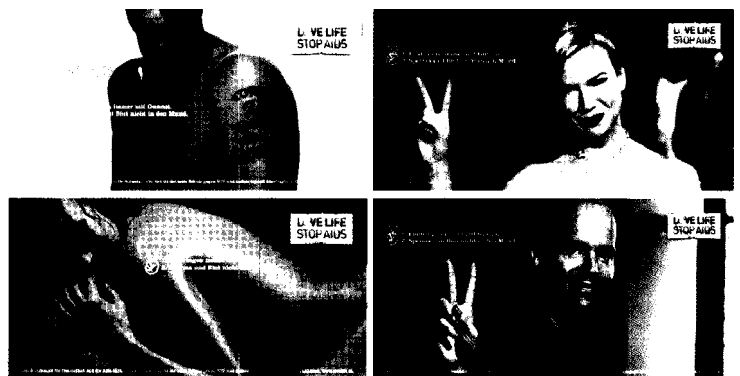
- 1. No intercourse without a condom.
- 2. No sperm or blood in the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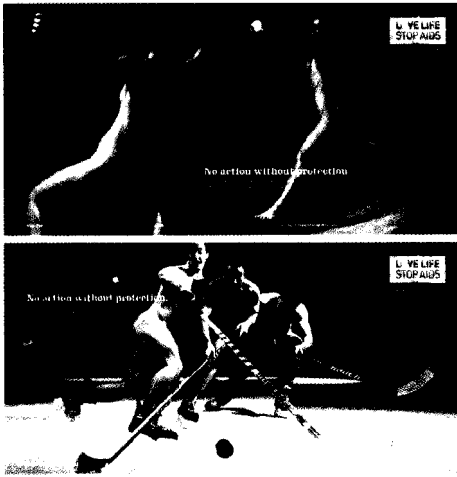


<LOVE LIFE STOP AIDS>캠페인은 스위스에서 국가 HIV/AIDS 예방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펼쳤던 에이즈예방 캠페인이다. 즉, 스위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기간 동안 HIV 전염의 여러 가지 형태를 알림으로써 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HIV에 대한 새로운 감염을 피하고, 전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HIV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은 포스터, TV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포스터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캠페인 로고는 LOVE LIFE STOP AIDS라는 슬로건을 콘돔 포장 위에 배치하고, LOVE의 O를 콘돔으로 표현함으로써 캠페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캠페인에는 안전한 섹스 룰인 1. No intercourse without a condom(콘돔 없이는 절대로 성교를 하지 말 것), 2. No sperm or blood in the mouth(입안에 정액이나 혈액이 닿지 않게 할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행동지침까지 적시하고 있다.

## 2005년 <LOVE LIFE STOP AIDS>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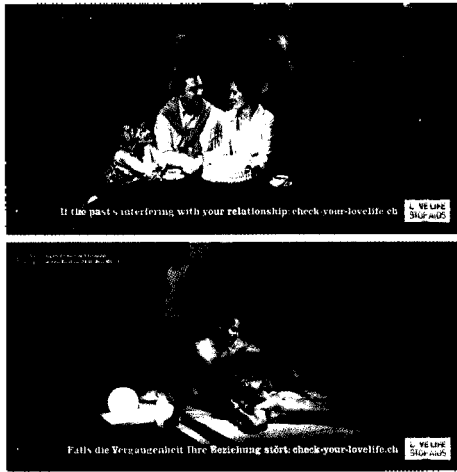
2005년의 캠페인은 건장한 남자의 팔뚝에 여자들이름들을 문신한 것과 미술작품을 이용한 광고 외에는 나중의 광고에 비해 비교적 소박한 표현들이라 하겠다. 남자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는 것은 보다 안전한 섹스를 위해 제안하는 2개의 섹스 룰을 강조한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깔끔하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힘이 있어 보인다.





**2006년 (No Action without Protection) 캠페인**

TV 방영은 물론 전국의 광고판과 극장에서도 상영되었던 광고이다. <펜싱편>과 <아이스하키편>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호장비 없이 합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선 벌거벗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끌어 잡기에 충분한 화면에는 보기에 심뚝한 동작들이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든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노려보는 여인들의 매서운 눈매, 날카로운 칼끝으로 찌르고 찢리는 모습, 하키 스틱을 움켜잡고 벌거벗은 몸으로 빙판을 질주하며 서로 부딪히는 건장한 남자들의 거센 몸싸움. 보호장비 없이 헤쳐는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 온다. 성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들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광고이다.



**2007년 (Check Your Love Life) 캠페인**

과거의 성생활을 체크해보라는 시리즈 광고이다. 현재의 모습을 밝은 화면으로 표현하고, 과거의 모습은 어둡게 표현하여 과거와 현재를 한 화면에 담았다. 첫 번째 광고를 보자. 지금은 아이와 함께 다정한 한 때를 보내고 있는 부부. 그러나 주변에는 남편이 과거에 관계를 가졌던 여러 여자들이 시 있다. 두 번째 광고는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이이다. 이들 주위에도 역시 과거에 관계했던 또 다른 남자들이 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후퇴이지로 들어 와서 <Check Your Love Life>를 통해 자신의 성생활을 체크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성별, 나이, 출신지역과 현재 사는 곳, 과거 섹스 경험 및 행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한 후,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 가능성과 앞으로의 안전한 성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2008년 (Always With) 캠페인**

우선 비주얼부터가 과격적이다. 출장 중인 우주인의 동성애, 바캉스를 즐기는 타잔, 물속에서 섹스를 하는 다이버, 그리고 야간 동굴 탐사 중에 성행위를 하는 두 남녀. 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평범하게 설정하지 않고, 뛰어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광고의 주목도를 훨씬 높이고 있다. 또한 에이즈 예방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함으로써 콘돔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훨씬 줄여주고 있다. 비주얼과 레이아웃의 완성도, 메시지 전달 방법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뛰어난 광고캠페인이라 할 수 있겠다.

